

아주대논술

인문계열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문제 1	3
문제 2	7
2025학년도 인문계열	12
문제 1	12
문제 2	17
2024학년도 인문계열	20
문제 1	20
문제 2	25

2026학년도 인문계열

문제 1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이 분배적인 몫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고 공평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정치적 조직이나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정의로운 체계를 포함하는 정의로운 기본 구조의 배경하에서만, 필수적인 정의로운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정한 기회 원칙의 역할은 협동의 체계가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하나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조차도 분배적 정의를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실용적인 이점은 무수히 많은 상황의 다양성과 특정 개인들의 변화하는 상대적 위치를 더 이상 일일이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세부 사항들과 관련이 있다면 발생하게 될 엄청난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나]

‘인재 선별기’가 된 대학을 뜯어고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면, 능력주의 체제가 그 폭력적 지배를 동시에 두 방향으로 뻗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상에 올라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안증, 강박적 완벽주의, 취약한 자부심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능력주의적 오만 등을 심는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사기 저하와 함께, ‘나는 실패자야’라는 굴욕감마저 심는다.

이 쌍방향 폭력은 하나의 도덕적 원인을 공유한다. 능력주의의 금과옥조인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 운명의 책임자다’라는 도덕률이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잘한 덕이며, 실패하면 우리가 잘못된 탓이다. 사기를 올려주는 말 같지만, 개인 책임에 대한 집요한 강조는 우리 시대의 불평등 상승 추세에 대응할 연대 의식이나 연대 책임을 떠올리기 어렵게 한다.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사회적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종종 기회의 평등의 유일 대안은 냉혹하고 억압적인 결과의 평등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다. 그것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에서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하며, 널리 보급된 학습 문화를 공유하고, 동료 시민들과 공적 문제에 대해 숙의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

플라톤은 자신의 대표적 저서인 『국가』에서 이상적 공동체란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여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에게는 생산에 힘쓸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하고, 용기의 미덕을 가진 사람에게는 국가를 수호할 일자리를 배분하며, 지혜의 미덕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출신 가문에 의해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라]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업적과 기여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즉 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적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적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간에는 성별, 건강, 재산, 종교, 사회적 계층 등 타고난 신체적·사회적 조건이 달라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그 성과를 분배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와 함께 사람들의 성취 동기를 높여 주고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같은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자극시켜 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적 부를 증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마]

평등한 접근권은 평등주의적 문제에 대한 평균주의적 해법이다. 수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성, 인종, 종교, 성적 성향, 사회 경제적 계층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왔다. 그동안 이런 차별에 대해 보여온 우리의 반응은 기회균등의 정도를 평균적으로 균형 잡으려는 노력이었다. 한 그룹의 평균적인 사람이 교육적·직업적·법적·의료적 대우에서 다른 그룹의 평균적 사람과 비교해 다른 접근권을 가지게 될 경우 평균주의 사고에서는 그 평균적인 두 사람을 가능한 한 비슷해지게 만들려 노력해야 공정한 처사라고 간주한다. 이는 평균의 시대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었다. 표준화된 세계에서는 그런 방식이 불공정을 다루는 가능한 최선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며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이라는 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평균적인 사람 같은 것이 없다면 평균적으로 평등한 기회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평등한 맞춤만이 평등한 기회의 밑거름이 된다.

[바]

스탕달의 『적과 흑』은 열아홉 살 질리앵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신의 출신 계급을 벗어나는 비상을 꿈꾸다가 스물세 살에 처형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적과 흑』의 배경이 되는 왕정복고 시대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망명 귀족들이 다시 집권하여 옛날의 특권을 되찾던 시대이다. 질리앵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최후진술에서 계급 문제를 언급하고 사형을 언도 받는다. 다음은 그가 최후진술을 하는 대목이다.

“배심원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경멸을 받을까 두려워 발언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계급에 속하는 영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저는 자신의 비천한 운명에 반항한 농부일 뿐입니다.”

질리앵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했다.

“저의 범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의 죄가 더 가벼운 것일지라도, 제 젊음이 동정할 만하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고 도리어 저를 통해, 저와 같은 하층민으로 태어나 어떻게 보면 가난에 갇히면서도 운 좋게 좋은 교육을 받고 부유한 사람들의 오만이 사교계라고 부르는 곳에 대담하게 끼어들려 한 저 같은 하층계급 젊은이들의 용기를 영원히 꺾으려 하는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 점이 바로 저의 죄입니다. 그러니 저는 저와 같은 계급의 동료들로부터 판결을 받지 못하는 만큼 더 가혹하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의 눈에는 배심원석에 부유한 농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분개한 부르주아들만 보입니다…….”

[문제 1-1] 제시문 (가)~(마)를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요약한 뒤, 각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 (20점)

[문제 1-2] 제시문 (가)~(마)와 관련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 50)자로 할 것.(30점)

■ 예시 답안

[문제 1-1]

(가), (나), (마)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 조건의 평등, 맞춤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반면 (다), (라)는 개인의 능력·덕성·업적에 비례한 지위의 배분과 보상의 분배가 정당하다고 보며,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에 적용해 본다면, (가), (나), (마)의 관점에서는 쥘리앵이 신분에 의해 조건의 불평등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계급적 편향이 절차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다), (라)의 관점에서는 신분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쥘리앵이 개인적인 능력과 소질을 실현하기 어려웠기에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었고 과실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408자)

[문제 1-2]

현대 사회는 계급이나 신분에 따른 제약은 사라지고 개인의 재능과 성취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출발선의 격차와 구조적 장벽을 간과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가 말하듯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불안증과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감과 사기 저하를 낳아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다. 능력과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며, 평균주의적 기준에 의해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과 채용 과정에서 배경에서 오는 차별과 격차를 줄이는 기회 균등 정책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선발과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층과 업적을 쌓을 시간이 적은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구조적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541자)

■ 채점 기준

[1-1]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석

20점

- ① (가), (나), (마)는 불평등의 조정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 조건의 평등, 맞춤의 평등과 같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으로 요약(5점)
- ② (다), (라)는 사회적 역할의 배분과 보상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요약(5점)
- ③ (바)에 대해 (가), (나), (마)의 관점에서 제도와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5점)
- ④ (바)에 대해 (다), (라)의 관점에서 개인의 능력이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5점)

[1-2] 제시문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서술

30점

- ① 제시문 중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적절히 활용(5점)
- ② 제시문의 내용과 현대 사회의 문제점 연결이 잘 나타남(5점)
- ③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교육, 입시, 채용 등과 같은 분야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함(5점)
- ④ 자신이 제시한 문제점에 맞추어, 교육, 입시, 채용 과정에 필요한 기회 균등이나 절차의 투명성 등과 같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적절히 제시함(10점)
- ⑤ 논지가 분명하고 논리 전개가 타당하며 표현이 정확함.(5점)

※ 감점 사항

- ① 분량 미달과 초과 : 5점 감점
-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문제 2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빈곤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빈곤의 원인은 개개인의 능력 차이이기보다는 사회 또는 지구 공동체의 구조적 체계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외 원조는 윤리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해외 원조는 의무의 영역인가, 자선의 영역인가? 해외 원조를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보는 자선의 입장과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윤리적 의무의 입장이 있다.

노직	개인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다른 개인이나 국가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소유권을 지닙니다. 따라서 해외 원조의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며, 원조의 문제는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싱어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윤리적 의무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민족, 인종, 국가에 관계없이 그들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소국에 대한 해외 원조는 의무이며,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롤스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것은 의무입니다. 빈곤의 문제는 물질적 자원의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 제도의 결함 때문이므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

국제 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류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역량을 지닌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분쟁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도 상대국이 심각한 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국의 구호팀을 파견하거나 구호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원조는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편 원조 공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나 외교정책의 하나로 원조를 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도 하고, 해외 자원의 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원조는 원조 수혜국의 주인 의식이나 자립 능력을 약화하여 원조의 딜레마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원조 수혜국의 필요에 따라 적정 수준의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 7100만 원이다.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ODA 예산 삭감은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ODA 기금은 의료, 보건, 식량 등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한다”라며 “원조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현지 NGO 활동가들이 줄어들면 주민 돌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는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그러나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라는 항의 전화도 걸려 왔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조 사업이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A씨는 “ODA 사업은 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부 등 관련 기관 간 소통을 이어 나가며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번 맥이 끊기면 사업 지속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폭행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작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2022년 1,789억 원, 2023년 1,805억 원, 2024년 2,178억 원, 2025년 4,353억 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사망한 20대 한국 대학생의 시신조차 두 달 넘게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자, 막대한 ODA를 받는 캄보디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냐며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우선 ODA가 추진되는 지역은 치안이 불안한 국가가 많은 만큼, ‘ODA·안전 연계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민 안전을 ODA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발생한 테러로 현지 ODA 프로젝트 요원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협력사업 안전대책회의’를 설치했다. 2021년 미얀마 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비인도적 분야의 신규 ODA를 중단하는 등 원조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 호주와 프랑스도 자국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원조를 일시 중단하거나 치안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프런티어 정신’에 입각해 위험을 무릅쓰고 ODA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수혜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 신규 사업 승인 단계서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추가해 위험 요소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능력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ODA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다.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 주는 국가’로 바뀌었다고 자랑하면서 원조액을 마냥 늘릴 일이 아니다. 2024년도 한국의 ODA 지원액은 39억 4,000만 달러(약 5조 6,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4.8%(7억 8,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처음으로 0.2%를 넘어섰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0.32%)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고 남북한 대치로 방위비를 많이 써야 하는 한국의 처지에서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 2-1] 제시문 (가)의 해외 원조를 자선 또는 의무로 보는 노직, 싱어, 롤스의 주장을 제시문 (나)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50)로 할 것.(25점)

[문제 2-2] 제시문 (나)의 해외 원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또는 (라)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캄보디아 ODA 논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50)로 할 것.(25점)

■ 예시 답안

[문제 2-1]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는 인류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심각한 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해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원조는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선이기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는 논자의 주장은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처지를 간과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해외 원조를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촉진하는 윤리적 의무로 규정하는 싱어에 따르면,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롤스도 해외 원조를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정치·사회 제도에 결함이 있는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427자)

[문제 2-2]

제시문 (다) 선택

제시문 (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를 국제 사회의 윤리적 의무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우리가 약속한 ODA가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 보건, 식량 등에 대한 ODA를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무고한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 주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을 지원하는 ODA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ODA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그동안 이룩한 성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 (407자)

제시문 (라) 선택

제시문 (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에 대한 ODA는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승인 단계서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위험 요소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ODA 규모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남북한 대치로 방위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ODA 규모는 감축되어야 한다. (414자)

■ 채점 기준

[2-1]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노직, 싱어, 롤즈의 주장을 (나)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20점

- 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선이기보다는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5점)
- ② 해외 원조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는 노직의 주장은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처지를 간과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5점)
- ③ 싱어는 해외 원조를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촉진하는 윤리적 의무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5점)
- ④ 롤스가 해외 원조를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정치·사회 제도에 결함이 있는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의무로 주장한다는 점을 지적(5점)

제시문 (다) 선택

[2-2] 제시문 (나)의 인도주의적 관점을 제시문 (다)의 캄보디아 ODA 지원 주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20점

- 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원조는 국제 사회의 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간에 캄보디아에 대한 ODA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② 만약 의료, 보건, 식량 등에 대한 ODA를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무고한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 주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③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을 지원하는 ODA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④ ODA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그동안 이룩한 성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5점)

제시문 (라) 선택

[2-2] 제시문 (나)의 국가이익의 관점을 제시문 (라)의 캄보디아 ODA 축소·중단 주장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20점

- ① 해외 원조는 외교정책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ODA는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②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승인 단계서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위험 요소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③ 남북한 대치로 방위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④ ODA 규모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ODA 규모는 감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5점)

※ 감점 사항

- ① 분량 미달과 초과 : 5점 감점
-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2025학년도 인문계열

문제 1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이 두 입장을 서로 조화시키려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 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정의는 보다 높은 어떤 것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중략)

내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도덕적인 행위는 이타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외적인 관찰자는 이기주의에서 선을 찾을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인간 본성의 구조에 대해 이기주의가 보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기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행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타성이 도덕의 최고 기준이어야 함에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행위의 주체만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이기심에 의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는 이타심보다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사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균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평등과 정의가 이기심의 상호 투쟁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웃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나]

자연은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어 그 육체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하므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십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신들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들 인간에게 땅을 경작할 팔을,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한 줌의 이성을 주었소. 나는 당신들 각자의 가슴에 서로를 도와 삶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동정심의 싹을 심어 주었소. 이 싹을 꺾거나 씹히지 마시오. 이 동정심의 싹이야말로 신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네의 가련할 수밖에 없는 당파적 논쟁의 격앙된 고함으로 자연의 목소리를 지우지 마시오.

당신네 인간들이 걸핏하면 벌이는 잔인한 전쟁, 과오와 우연과 불행이 펼쳐지는 영원한 무대인 그 전쟁 한 복판에서도 오직 나 자연만이 당신들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서로 간의 필요로 결합하게 할 수 있소. 오로지 나 자연만이 국가귀족층과 사법부 사이, 세속 권력 집단과 성직자 사이,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끊임없는 분열로 빚어지는 참담한 재앙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소.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권리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 내키지는 않겠지만, 가슴에 호소하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요.

[다]

금지(矜持)는 ‘메갈로프쉬키아’(megalopsychia, 정신이 큼)란 그 명칭으로 보더라도, 큰 것에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종류의 큰 것에 관계하는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볼 문제이다. 금지있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큰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또 사실 그러한 사람이다. 자기의 가치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덕에 의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요, 이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중략)

그리하여, 만일 그가 큰 일에 그리고 특히 가장 큰 일에 합당하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는 특별히 한 가지 일에 관심을 둘 것이다. 자기가 무엇에 합당하다든가 얼마 만한 가치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외적인 선과의 관계에서 말해지는 것이다. 이런 외적인 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신들에게 우리가 돌리는 것,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가장 고귀한 행위에 주어지는 상이라 할 수 있다. 명예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명예야말로 외적인 선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와 불명예는 금지있는 사람이 당연히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다. 그리고 금지 있는 사람들이 명예에 마음을 쓰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주로 명예에 관해서 자기가 합당하다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지있는 사람이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인 까닭에, 또한 반드시 최고도로 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다 더 선한 사람은 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며, 가장 선한 사람은 가장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금지있는 사람은 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덕에 있어서의 위대성이 금지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 자기의 무기를 내버리고 위협에서 도망치거나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일은 금지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명예를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명예롭지 않은 일을 하겠는가? 개별적으로 살펴보자면, “선하지 않고서 금지있는 사람”이란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또 나쁜 사람이 명예를 얻을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예란 덕에 대한 보상이요, 명예를 얻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보니, 금지란 온갖 덕이 차지하는 일종의 면류관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금지가 미덕들을 더욱 위대하게 하며, 또 미덕 없이는 금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금지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성격의 고귀함과 선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짐승들은 모두 제 좋은 일에만 빠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뿐, 제 좋은 일이 남을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짐승들은 뭘 알고고도 뭘 유난스레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떼 지어 사이좋게 잘 살아간다. 짐승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도 무리 지어 오래오래 잘 지내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 천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따지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사람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짐승 가운데 사람만이 사회를 이루고 산다. 유난히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약삭빠른 짐승이기에 사람은 아무리 위에서 억누르려고 해도 힘으로만 한다면 다스릴 수도 없고 제대로 고칠 수도 없다.

따라서 법을 만든 사람들과 그 밖에 슬기로운 사람들이 사회를 일으키면서 이제껏 가장 힘써온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욕구에 빠지는 것보다 욕구를 이겨내는 것이 낫고, 저만 생각하는 것보다 모두를 걱정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아주 어려운 일이었기에, 어느 시대에든 도덕군자와 철학자들은 이처럼 쓸모 있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있는 숨씨를 다 부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었든 안 믿었든,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 좋은 일에 앞서 남 좋은 일을 하게 만들려면, 힘을 휘둘러 얻는 만큼을 달리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떠맡아온 사람들이 이를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람 일 하나하나에 모두가 좋아할 만큼 진짜 상을 다 내릴 수가 없었기에, 이들은 금욕하는 수고를 보상해주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없으면서도 받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쏙 드는 허깨비를 한 가지 꾸며내기에 이르렀다. (중략) 도덕이란 사람들을 다루기 쉽게 바꾸어 쓸모 있게 만들고자 숨씨 좋은 정치인들이 꺼내 들면서 비릇된 것이며, 야심가에게는 더 큰 이득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쉽고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꾸며낸 것이다.

[마]

(A)돈 끼호떼가 소년을 알아보고는 손을 잡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세상에 방랑기사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상에 버르장머리 없고 나쁜 사람이 많으니 기사들은 폭력을 막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전에 내가 어느 숲을 지나다가 고통에 시달리는, 대단히 아파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요. 의리에 사는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비통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지금 앞에 있는 이 소년이 참나무에 묶여 신음하고 있더군요. 참나무에 묶여 옷통은 다 벗겨진 채였고, 촌사람 하나가 말채찍으로 사정없이 이 아이를 두들겨 패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람이 (B)주인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나는 무슨 연유로 그렇게 두들겨 패는지 물었지요. 그 무정한 친구의 대답이 자기 종이니까 때린다고 하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몰라서라기보다는 도둑질할 생각이 있어 저지른 죄라고 그러더군요. 그 말에 이 아이가 그러더군요. ‘나리, 제가 월급을 달라니까 주인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주인은 뭐라고 지껄이면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 말을 들어주시는 했지만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난 아이를 풀어주라고 했고, 아이를 데려가기는 하되 품삯을 1레알쯤 더 얹어서 후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요. 이 말이 다 사실 그대로지, 안드레스야?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명령을 하는지 너도 보았지? 그리고 네 주인이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시킨 그대로, 알려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걸 보았지? 말해봐, 아무 걱정 말고 말하려무나. 이분들께 그때 일을 말씀드려야 길거리에 방랑기사들이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이롭고 훌륭한지 알 것 아니냐.”

“나리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정말 사실 그대로입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의 결과는 나리께서 상상하신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벌어졌습죠.”

“어떻게 거꾸로 벌어졌다는 말인가” 돈 끼호떼가 되물었다. “그뒤 그 촌놈이 돈을 안 주던가?”

“돈을 안 준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나리께서 숲을 떠나시고 둘만 남자 저를 같은 참나무에 또 매달고 다시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저는 죽사발이 되었습죠. 저를 때릴 때마다 빈정대는 우아한 말투로 나리를 조롱하는데, 정말 그토록 아프지만 앓았다면 저도 그 말에 웃었을 거구만요. 결국 악질 촌영감이 그렇게 저를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때 입은 상처로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구만요. 이 모든 게 나리의 죄입니다요. 나리께서 가던 길이나 가시고, 부르는 데가 아니면 안 가시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나 앓았다면 우리 주인도 저를 한 열스무 대 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저를 풀어준 뒤 제게 빗진 걸 갚아주었을 거구만요. 그런데 나리께서 그렇게 지각없이 그 사람 체면을 깎고 그렇게 욕을 하시니까 화김에 발끈 달아올라 나리께 복수할 수는 없으니 단둘이 남은 틈을 타서 저에게 그냥 온갖 먹구름을 다 뒤집어씌운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제구실을 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중략)

안드레스는 빵과 치즈를 집어들고 아무도 더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발길을 옮겨 떠나면서 돈 끼호떼에게 한마디 했다.

“제발요, 방랑기사 나리, 다시 어디서 저를 보거든, 누가 저를 짓밟고 있는 걸 보셔도 도와주거나 구해주려 하지 마세요. 제 불행은 제가 감당할 테니 내버려두세요. 그래도 나리께서 도와준 뒤 당하는 수모보다는 많지도 크지도 않을 겁니다. 나리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방랑기사를 저주하고 하느님까지 저주합니다요.”

[문제 1-1] 제시문 (가)~(라)를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유사성에 따라 둘로 분류하고, 각 관점별로 내용을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1-2] 위의 [문제 1-1]에서 분류한 관점 가운데 하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A)와 (B)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 비교하여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 예시 답안

[문제 1-1]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와 (라) 그리고 (나)와 (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가)와 (라)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러한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는 개인적 양심의 도덕성은 사회 생활에서 중요하며, 정의와 이타성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본다. (라)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힘만으로 다스릴 수 없어서 이기적인 인간에게 금욕의 대가를 주기 위해 도덕을 만들었다고 한다. (나)와 (다)는 인간의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인간은 서로 돕고 용서하여야 하며, 자연에 의해 주어진 동정심을 발휘하여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한다. (다)에서 금지를 갖는 것은 선한 인간의 품성이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성격의 고귀함과 선함이 있어야 금지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힘든 일이다.(454자)

[문제 1-2]

1. (가)와 (라)의 관점을 활용한 경우

(가)에 따르면 A는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와 개인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이타성을 추구한 것이다. A는 체벌을 받고 있는 소년을 구출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였고, 월급을 주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는 주인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B의 양심만 믿고 이기심에 대해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한 의도와 다르게 소년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그의 비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B는 소년에게 정당한 임금 지불을 하지 않고 원한으로 매질을 하였고, A와의 약속도 어기고 소년에게 보복을 한다. B는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의와 이타성이 결여된 이기적인 욕구만 내세운 것이다. 그는 (라)에서 금욕의 보상이라고 하는 도덕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의 이기심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417자)

2. (나)와 (다)의 관점을 활용한 경우

A는 (나)에서 말하고 있는 동정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년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B는 소년에게 동정심을 베풀지도 않고 잔인한 체벌을 하였다. 이것은 자연이 부여한 동정심의 싹을 꺾는 잘못된 행동이다. B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소년은 더 큰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A의 선한 의도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에 의하면 A는 금지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사로서 폭력을 막고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큰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자 했고 명예를 추구하였다. 소년에게 불평과 비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고귀함과 선함을 가진 금지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B는 폭력을 쓰고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다)의 금지에 합당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금지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A의 금지와 선의가 현실에서 무시되거나 실현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451자)

■ 채점 기준

1. 채점 시 유의 사항

-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뉨.
- ② [문제 1-1]의 출제의도는 내용의 사실적 파악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임.
- 인간 본성(성선설, 성악설)이나 사회계약론을 펼치는 것은 출제 의도를 벗어난 답안임.
- ③ [문제 1-2]의 출제의도는 제시문의 개념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임.
- A와 B에 대해 단순히 인성이나 선악을 평가하는 것은 출제 의도를 벗어난 답안임.

3. 세부 지침

① 내용면 ----- 문제 1-1 20점, 문제 1-2 20점

[1-1]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류와 요약을 적절히 하는지를 평가-----20점

- ① 제시문을 적절히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는가?(10점)
- ② 제시문 (가)와 (라)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요약하였는가?(5점)
-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도덕성(이타성)의 조화, 이기심, 사회적 제재, 도덕, 억제
- ③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요약하였는가?(5점)
- 자연(천성), 동정심(관용), 금지, 선, 미덕

[1-2] 이해한 내용을 활용하여 주어진 제시문을 적절히 비교하고 분석하는지를 평가-----20점

- ① 제시문 (가)와 (라), 또는 (나)와 (다)에 나타난 관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10점)
- ② 제시문 (마)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는가?(10점)
- A: 사회적 정의와 이타심의 행동. 명예와 금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선한 의도. 이기심을 이해하지 못함. 현실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여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옴.
- B: 이기적 욕구. 정의롭지 못한 행동. 금지와 명예를 모름.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필요

② 표현면 ----- 문제 1-1, 1-2, 각 5점(상: 5, 중: 3, 하: 0)

-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 ② 문장력: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 구사

※ 감점 사항

- ①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문제 2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각 나라가 자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무역할 경우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한다. 무역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 이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무역을 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생긴다. 둘째, 무역이 확대되면 국내의 기업들은 많은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무역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넷째, 무역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전파되기도 한다.

각국 정부는 무역을 규제하는 보호 무역을 시행하기도 한다. 보호 무역 정책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수입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것은 국내 상품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유치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그 산업의 무역을 규제하거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정부가 관련 산업 또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외국이 불공정 거래를 할 때 이에 대응하고자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넷째,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산업은 국가 내에서 보호하여 육성할 수 있다.

[나]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까지 확장시켰다. 특히 한국의 상품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민국 투자는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미 FTA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은 ①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 ② 윈윈(Win-Win) 투자효과 ③ 공급망 협력 등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심화됐다. 한때 미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를 심화시켰다며 문제 삼기도 했으나, 양국 간 교역은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지적한 무역적자는 상품무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서비스무역에서 미국은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상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국은 공산품에, 미국은 에너지자원 등 광물과 농산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은 각각 제조장비와 원료(원유)를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투자처다. FTA 체결 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국 간 투자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 기업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됐다.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FTA 추진 당시 미국에 시장을 뺏기고 정부의 재량권이 잠식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지적재산권 강화로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K-콘텐츠 등의 국내 산업의 잠재력 폭발과 해외시장 도약이라는 또 다른 상호 혜택의 발판 역할을 했다.

[다]

최근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미 무역 흑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157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는 44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통상 압박을 할 수 있다. 최근 3년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 적자는 연평균 27.5% 증가했다. 2019년 이후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제품에서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 연합,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18년 집권 당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본격화했고, 지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더 강력한 관세 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동맹국을 상대로도 무역협정 재협상

을 요구하며 무역 수지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반도체법(CHIPS Act)이 현지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유세 기간 중 ‘관세 만능주의자’로 보일 만큼 관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왔다.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로 인해 제조업이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매기고, 다른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공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가 만약 10%의 보편 관세를 실행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304억 달러 감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24~0.67%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10센트도 줄 필요가 없다. 관세를 높게 매기면 해외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올 초 미국에 66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9조 원의 보조금을 미 정부로부터 받는 내용으로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마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싶어 하는 트럼프가 보조금 축소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라]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 번 ‘트럼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러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중요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하에서도 ‘상호주의’를 외치던 미국의 무역당국은 미국 만큼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높여 더 이상 미국에 불리하지 않은 국제통상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관세 카드를 활용하여 수입 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여 상품을 팔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미국의 현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약속하였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재무부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미 의회에 세액공제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IRA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 사용 우대(Buy America)’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 2-1]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2-2] 제시문 (다)와 (라)를 참고하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 예시 답안

[문제 2-1]

자유 무역은 소비자가 전 세계로부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제시문 (나)는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공산품, 미국은 광물과 농산물을 각각 수출하여 양국의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반도체 및 배터리에 투자하여 생산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FTA는 양국에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호주의는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제시문 (다)는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FTA는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446자)

[문제 2-2]

제시문 (다)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한 제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미국이 10%의 보편관세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304억 달러,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4~0.6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시문 (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삼성전자가 66조 원 투자할 때 약속받은 9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무효화되거나 폐지되면 전기차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미국산 제품 사용 우대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443자)

■ 채점 기준

1. 채점 시 유의 사항

-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뉜다.
-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3. 세부 지침

① 내용면 ----- 문제 2-1 20점, 문제 2-2 20점

[2-1]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자유무역과 보호주의의 차이를 이해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20점

- ①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5점)
- ② 무역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5점)
- ③ 국내 상품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5점)
- ④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5점)

[2-2] 제시문 (다)와 (라)에서 논의된 트럼프 행정부 2기 보호주의 정책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0점

- ①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304억 달러,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4~0.67% 각각 감소한다는 사실을 지적(5점)
- ②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지적(5점)
- ③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삼성전자가 66조 원 투자할 때 약속받은 9조 원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예측을 지적(5점)
- ④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무효화되거나 폐지되면 전기차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며 미국산 제품 사용 우대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평가를 지적(5점)

② 표현면 ----- 문제 2-1, 2-2, 각 5점(상: 5, 중: 3, 하: 0)

-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 ② 문장력: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 구사

※ 감점 사항

- ①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문제 1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이듬해 삼월, 화옥은 열네 살이 된 맏아들 화춘, 열 살이 된 둘째 아들 화진 그리고 열아홉 살이 된 조카 성생과 함께 후원의 상춘정에서 봄날을 즐기다가 그들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하였다. 모두가 시를 지어 올리니, 화옥이 먼저 조카 성생의 시를 읽고는 감탄하였다.

“침착하고 중후하고 온화하여 진실로 군자의 글이로구나.”

다음에 화춘의 시를 읽었는데 화옥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종이를 던져버렸다.

“어린 자식이 이리도 막돼먹었으니 우리 집안이 망할 징조다.”

화춘은 놀라서 황급히 당 아래로 내려갔다. 성생이 말했다.

“갑작스럽게 시를 짓다 보면 잘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흡족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요.”

화옥이 말했다.

“아니다. 시를 잘 짓고 못 짓고를 탓하는 게 아니다. 경박함과 음탕함이 시에 가득하니, 이런 놈은 앞으로 집안을 어지럽힐 것이다.”

그러더니 오래도록 미간을 찡그리며 언짢아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 화진이 쓴 시를 보고는 흐뭇하여 그 온화한 표정이 봄빛처럼 따스했다. (중간 생략) 화옥이 즐겨 보다가 성생에게 보여주었다. 성생은 두세 번 읊조리더니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단정히 모으며 말했다.

“여유롭고도 아름다운 품이 당나라 초기 시의 율격이 있습니다. 또한 화려하면서도 맑고 굳세니 당나라 왕건이 지은 시와 비슷합니다. 재주가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화옥은 다시 정색하고 화춘을 나무랐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가 전통이다. 오로지 바른 도로써 마음을 단속하여, 술 마시고 농담하는 자리에서도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나와 사촌 형 앞에서조차 이처럼 어지럽고 방탕하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행실을 닦으며 일거수일투족 모두 네 아우를 본받아 화씨 집안이 네 손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라.”

화춘은 무안하고 창피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노느라고 학업을 소홀히 하였으니, 책망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버님께서서는 지나치게 노여워하시면서 ‘화씨 집안이 네 손에서 망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화진에게 무릎을 꿇고 매사에 배우라고 하시는데, 화진이 비록 재주가 유달리 뛰어나고 행실이 볼 만하다고는 해도 세상에 어떤 형이 아우에게 배운단 말입니까?”

이후로 화춘은 공연히 화진을 원망하면서 자나 깨나 이를 갈았다. 그러는 사이 한두 해가 지나갔다. 화춘은 날이 갈수록 행실이 사나워지고 말이 거칠어졌다.

-<창선감의록>-

[나]

내가 정의하는 공감은 타인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다. (중간 생략)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다. 타인의 감정에 자신을 실제로 이입하고 그들의 생각과 신념, 동기와 판단을 헤아림으로써 서로를 깊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를 연결하는 끈으로서 공감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도록 돕고,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이성애 힘입어 정서적 균형을 찾도록 가르치고,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각조각 부서진 원형질처럼 이 행성을 떠돌며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서로 부딪히고 튕

겨 나가길 반복할 것이다. 깨어 있지만 무감각하고, 의식이 있지만 무신경하며, 감정이 차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지도 못할 테니 말이다.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우리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중간 생략) 타인과의 연결을 끊고,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남을 쉽게 단죄하고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반대로 공감을 통해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삶의 슬픔과 고통을 더욱 수월하게 견딜 수 있다. 공감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공감은 부자나 고학력자나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이의 것이다. 또한 공감에는 남을 전염시키는 특징이 있기에 당신이 먼저 베풀면 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서 P. 시아라미콜리, 캐서린 케첩-

[다]

제러미의 연구소에 존재하는 기술은 몇십 년 전에는 SF 속에만 존재했다. 그 기술은 흥미진진한 아이디어였지만, 극소수만 접할 수 있었고, 비싸고 실용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2014년에 페이스북은 오кул러스 VR을 약 20억 달러에 인수했다. 같은 시기에 1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의 저렴한 다양한 휴대용 기기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도 가상현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제러미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미디어 지형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그는 “가상현실은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매체보다 심리적으로 강력하다”라고 썼다. 그 비법은 제러미가 ‘심리적 현실감’이라 칭하는 것이다.

책과 영화는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옮겨다 놓지만, 독자와 관객은 자신이 독서와 영화 감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가상현실은 사람들이 그것이 매체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을 완전히 품어버린다. 가상현실에 몰입하면 도시 위를 날아갈 때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떨어지는 잔해와 적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게 된다. 그들은 가상의 경험과 실제 경험을 혼동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경험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상현실은 환상을 강화하며 게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가상현실이 주는 심리적 현실감 때문에 가상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경험을 시도하게 해줄 수도 있다. 제러미는 바로 이 점이 가상현실 기술이 지닌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미식축구에서 쿼터백들은 가상현실을 활용해 경기장을 더 잘 시각화할 수 있고, 의대생들은 복잡한 처치를 연습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가상현실은 신속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케 해준다. 또한 가상현실은 사람들이 노인이나 다른 인종의 몸으로, 혹은 색맹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발견 때문에 예술가 크리스 밀크(Chris Milk)는 가상현실을 ‘궁극의 공감 기계’라고 극찬했다. 2014년 크리스 밀크는 당시 84,000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물고 있던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지내는 12살 소녀에 관한 가상현실 영화인 <시드라에게 드리운 구름>을 만들었다. 관객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시드라를 현실처럼 ‘만나고’ 시드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난민 캠프를 둘러본다. 밀크는 최근 그 영화와 그것을 보는 데 필요한 오кул러스 헤드셋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가져갔다.

“그 사람들은 난민 캠프 텐트 안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중간 생략)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스위스에서 그들은 모두 난민 캠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크리스 밀크에 따르면 “거기 앉아 있어본 것”이 중요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단순히 시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 생략) 그 애와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고개를 숙이면 당신도 시드라가 앉아 있는 바로 그 땅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한 인간으로서 시드라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층적인 방식으로 시드라에게 공감하게 되죠.”

-자밀 자키-

[라]

벳슨은 공감이 우리를 자극해 타인을 돕게 한다는 견해를 옹호한다. 그러나 공감이 필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벳슨의 말대로, “공감이 유도하는 이타적 행동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비도덕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도덕과는 상관이 없다.”

벳슨의 다음 실험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벳슨은 피실험자들에게 어떤 자선단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단체는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선단체였다. 그런 다음 벳슨은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아이의 인터뷰를 듣게 될 것이라고 피실험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피실험자들을 둘로 나누고, 한쪽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를 듣는 동안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인터뷰하는 아이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심이 없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또 다른 쪽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하는 아이가 일련의 일을 겪으며 기분이 어땠을지, 그런 일들이 그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이 아이에게 어떤 타격을 입혔을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아이의 기분은 어떨지 느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 아이는 아주 밝고 용감한 열 살짜리 세리였다. 인터뷰에서는 세리가 앓고 있는 불치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왔다. 그리고 세리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다. 벳슨은 양쪽 피실험자들에게 대기자 명단에서 세리의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리고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곧 세리보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효과는 강했다. 공감을 유도하는 말을 들은 피실험자의 4분의 3이 세리의 순서를 앞당기고 싶어 했다. 반면에 공감을 억제하는 말을 들은 피실험자들의 경우에는 3분의 1만이 세리의 순서를 앞당기고 싶어 했다. 공감의 효과는 차례를 지키는 정의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 쪽으로 발휘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공감 대상인 세리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쏟게 했다.

-폴 블룸-

[문제 1-1]

(가)에서 ‘화춘’에게 벌어진 상황을 요약한 후, (나)의 견해에 비추어 ‘화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나)의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다)와 (라)는 각각 어떤 견해를 펼치고 있는지, 각각에서 언급한 사례를 논거로 들어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 예시 답안

[문제 1-1]

화춘은 자신의 시가 경박하고 음탕하다는 이유로 부친 화옥으로부터 집안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심한 꾸지람과 아우를 본받으라는 말을 듣고 창피함을 느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동생을 원망하고 언행이 거칠어져 갔다. 이렇듯 (가)에는 부친에 대한 서운함, 동생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해 부친의 훈계와 달리 엇나가는 화춘의 상황이 나타난다.

하지만 화옥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경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정서적 균형을 찾도록 가르침으로써,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화춘의 시가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훈계해야 했는데 화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화옥은 화춘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음으로써 화춘을 분노와 원망으로 치우치게 하여 인생을 그르치게 한 역효과를 냈을 뿐이다. (426자)

[문제 1-2]

(나)는 공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다)는 그 연장선에서 가상현실의 힘에 주목한다. 가상현실 영화인 <시드라에게 드리운 구름>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자들에게 공간을 초월하여 요르단 자타리에 있는 시리아 난민 소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가상현실은 마치 실제로 겪는 듯한 심리적 현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층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라)는 공감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공감이 유도한 결과가 도덕과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뱃슨의 실험 결과에서 보듯, 불치병 환자인 세리를 향한 사람들의 공감은 세리의 수술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세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리가 자신보다 앞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제치고 먼저 수술을 받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 (390자)

■ 채점 기준

1. 채점 시 유의 사항

-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뉜다.
-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3. 세부 지침

① 내용면 ----- 문제 1-1 20점, 문제 1-2 20점

[1-1] (가)에서 ‘화춘’에게 벌어진 상황을 요약한 후, (나)의 견해에 비추어 ‘화옥’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0점

① (가)에서 ‘화춘’에게 벌어진 상황을 요약 ----- (10점)

- 화춘의 시가 경박하고 음탕하다는 부친의 꾸짖음 (2점)
- 아우를 본받으라는 부친의 훈계 (2점)
- 화춘이 창피함을 느끼고 아우를 원망함 (3점)
- 부친의 훈계를 따르지 않고 엇나감 (3점)

② (나)의 견해에 비추어 ‘화옥’(부친)의 문제점 서술 ----- (10점)

- 공감은 타인의 경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정서적 균형을 찾도록 함으로써,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줌 (4점)
- 화춘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훈계해야 했는데 화옥은 그렇게 하지 못함 (3점)
- 화옥은 화춘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음으로써 화춘의 인생을 그르치게 했음 (3점)

[1-2] (나)와 관련하여, (다)와 (라)의 견해를 적절히 제시하고 실험 결과를 논거로 든 경우 ----- 20점

① (나)와 관련하여, (다)의 견해를 적절히 제시하고 실험 결과를 논거로 든 경우 ----- (10점)

- (나)는 공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다)는 그 연장선에서 가상현실의 힘에 주목함 (2점)
- 가상현실 영화인 <시드라에게 드리운 구름>은 공간을 초월하여 시리아 난민 소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줌 (4점)
- 가상현실은 심리적 현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층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해줌 (4점)

② (나)와 관련하여, (라)의 견해를 적절히 제시하고 실험 결과를 논거로 든 경우 ----- (10점)

- (라)는 공감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공감이 유도한 결과가 도덕과 무관함을 주장함 (2점)
- 불치병 환자인 세리를 향한 사람들의 공감을 유도하여 세리의 수술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세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4점)
- 세리가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를 제치고 먼저 수술을 받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음 (4점)

② 표현면 ----- 문제 1-1, 1-2, 각 5점(상: 5, 중: 3, 하: 0)

-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 ②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① 문제 1-1, 1-2 각각 분량 미만과 초과 시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문제 2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선거제도는 다양한 방식들을 포함한다. 많은 국가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제가 있다. 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또는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고, 각 정당 또는 같은 정당 후보들에게 행사된 표는 합산되어 정당 득표율이 결정된다. 선거구에 할당된 의원 정수는 이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예컨대, 의원 정수가 300명인 선거구에서 세 정당이 각각 10%, 40%, 50%를 얻은 경우, 이들 정당은 각각 30석, 120석, 150석을 얻는다. 단순다수제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이 가능한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다수제에서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군소 정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다수제에서는 낙선한 군소 정당 후보들이 얻은 표들이 모두 버려지므로, 이들의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제보다 복잡한 선거제도는 이 둘을 섞어서 사용하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한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분류된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을 각각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제로 선별한다. 병립형 선거제도에서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나 지역구 의석은 비례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예컨대, 총 300석 중 250석의 지역구 의원을 선별하고 50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별하는 국가에서 지역구에서 강한 A당이 100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고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으면, A당은 지역구 의석 100석과 비례 의석 15석을 얻는다. 군소정당 후보는 지역구에서 10%를 득표했어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병립형과 연동형의 중요한 차이는 비례 의석의 배분 방식에 있다.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지역구 승리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반해 연동형에서는 두 종류의 의석 배분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 연동형에서는 전체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값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만큼의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증가할수록, 이 정당이 얻는 비례 의석은 줄어든다. 예컨대, 한 정당이 300명을 선별하는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30%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면 300석의 30%에 해당하는 90석에서 지역구 의석 0석을 뺀 90석의 비례 의석을 얻는다. 그러나 이 정당이 30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면 90석에서 30석을 뺀 60석의 비례 의석을 얻는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병립형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되면,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연동형에서 앞의 A당은 총 300석의 30%에 해당하는 90석을 배정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A당은 100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으므로, 90석이 아닌 100석을 얻는다. 따라서 A당은 비례적인 의석 배분 결과인 90석보다 10석을 초과한 지역구 의석 100석을 얻게 되고 비례 의석은 1석도 얻지 못한다. 이처럼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 이 정당은 자신이 얻은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얻는다.

[나]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도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한다. 준연동형에서는 비례 의석을 연동형 의석과 병립형 의석으로 나누고, ‘연동률’을 적용해서 연동형 의석을 배분한다. 예컨대, 총 300명을 선별하는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에서 약한 B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30%의 정당 득표를 했으면, 이 정당은 90석에서 지역구 의석 0석을 뺀 90석을 비례 의석으로 가져간다. 반면 총 300명을 선별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50%의 연동률을 사용하는 경우, B당은 90석에서 지역구 의석 0석을 뺀 90석의 50%인 45석을 ‘연동형’ 의석으로 가져간다.

각 정당에게 연동형 의석을 배분하고 남은 비례 의석은 ‘병립형’ 의석이라 부른다. 예컨대, 각 정당이 얻은 연동형 의석의 합이 30석이고 전체 비례 의석수가 50석인 경우, 병립형 의석이 20석 남게 된다. 이럴 경우, 30%의 정당 득표를 한 B당은 병립형 20석의 30%에 해당하는 6석의 병립형 의석을 얻게 된다. 연동형 선거제도와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얻는 의석을 비교해보면, B당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동형에서 지역구 의석 0석과 비례 의석 90석을 얻게 되고,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의석 0석과 비례 의석 51석(연동형 45석과 병립형 6석)을 얻는다.

이처럼 복잡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 비례 의석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도 병립형 의석을 통해 비례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역구 100곳에서 승리하고 30%의 정당 득표를 한 A당은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비례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한다. 반면 A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하지만 6석의 병립형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두 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각각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들의 위성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63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고 더불어시민당은 33.4%를 득표하여 17석의 비례 의석을 얻었다. 미래통합당은 84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고 미래한국당은 33.8%를 득표해서 19석의 비례 의석을 얻었다. 선거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자신의 위성정당과 합당하였다.

[문제 2-1]

정당들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 비율이 결정되는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부른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일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이 같아진다.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병립형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답에 대한 이유를 (가)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위성정당의 창당을 촉진하는 이유를 (나)에서 제시된 A당과 B당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설립한 이유를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특징으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 예시 답안

[문제 2-1]

세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 높은 선거제도의 순으로 나열하면 단순다수제, 병립형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에서 유권자들은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고 낙선한 군소정당 후보에게 던진 표는 버려지므로 군소정당 후보는 의석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군소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가장 크고 비례성이 가장 낮다.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각 정당은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얻는다. 따라서 비례성이 가장 높다.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나 지역구 의원은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단순다수제보다는 높은 반면, 비례대표제보다는 낮다. (376자)

[문제 2-2]

(나)에서 100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한 A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한 반면,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B당은 45석의 연동형 의석을 얻었다. 두 정당의 예가 보여주듯이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정당은 다수의 연동형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득표율만큼의 연동형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자신이 얻은 지역구 의석과 위성정당이 얻은 연동형 의석을 모두 챙길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연동형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수만 얻게 된다. 따라서 두 정당은 더 많은 연동형 의석을 얻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429자)

■ 채점 기준

1. 채점 시 유의 사항

-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뉜다.
-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3. 세부 지침

① 내용면 ----- 문제 2-1 20점, 문제 2-2 20점

[2-1] (가)에서 제시된 네 선거제도의 특성들을 읽고 비례성의 정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20점

- ① 단순다수제, 병립형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순으로 나열한 경우 (5점)
- ② 단순다수제에서 군소정당 후보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낮고 군소정당 후보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 (5점)
- ③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사실 지적 (5점)
- ④ 병립형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단순다수제보다는 높고 비례대표제보다는 낮다는 사실 지적 (5점)

[2-2]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기 어려운 준연동형 제도의 특성 파악 능력 평가 ----- 20점

- ① 지역구에서 강한 A당은 준연동형 제도에서 연동형 의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지적 (5점)
- ② 지역구에서 약한 B당은 준연동형 제도에서 45석의 연동형 의석을 얻었다는 사실 지적 (5점)
- ③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지역구 의석과 위성정당이 얻은 연동형 의석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지적 (5점)
- ④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강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사실 지적 (5점)

② 표현면 ----- 문제 2-1, 2-2, 각 5점(상: 5, 중: 3, 하: 0)

-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 ② 문장력: 문법에 맞는 문장 구성
-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 ① 문제 2-1, 2-2 각각 분량 미만과 초과 시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